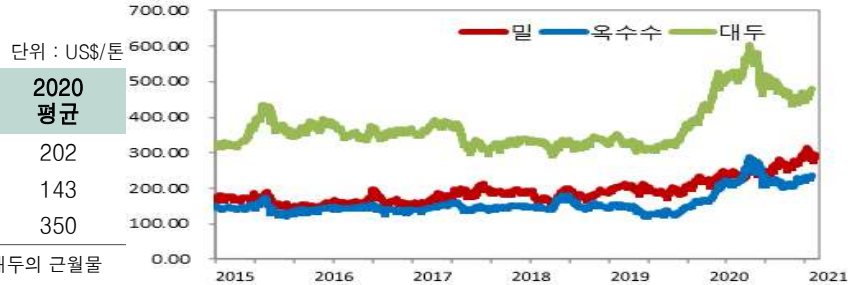


밀 선물가격, 글로벌 공급에 대한 우려로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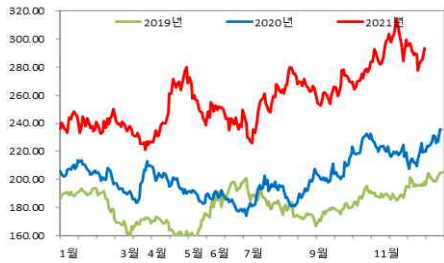
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

구분	기준일 ('21.12.21)	전일대비	전월평균 ('21.11)	2020 평균
밀	293.58	▲2.7%	296	202
옥수수	233.52	▲1.2%	225	143
대두	481.60	▲1.2%	456	35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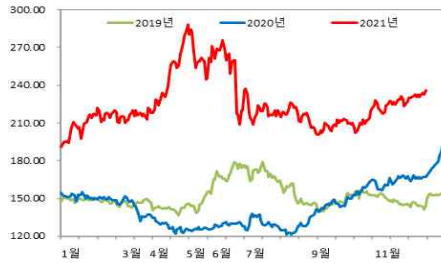
주1.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(적색연질밀; SRW), 옥수수, 대두의 근월물 (밀 : 3월, 옥수수 : 3월, 대두 : 1월물) 정산가격임.

밀 선물시장 상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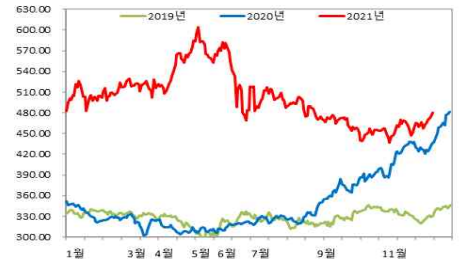
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2.7% 상승했다. 밀 선물가격은 글로벌 공급에 대한 우려로 상승했다. 경질적색 겨울 밀 작황은 건조한 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 주 미국 평원 지대를 강타한 허리케인 강풍의 영향을 받았다. 밀 생산국인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출 가능한 2021/22 시즌의 옥수수와 밀의 물량을 제한했다. 거래자들은 터키 곡물관리위원회(TMO)가 국제 경매에서 밀 32만 톤을 구매했다고 말했다.

옥수수 선물시장 상황



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.2% 상승했다. 옥수수 선물가격은 에너지 시장의 반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. 거래자들은 원유 가격 반등이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가 개선됨에 따라 선물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. 곡물은 에탄올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옥수수는 유가와 관련이 있다. 거래자들은 브라질 남부와 아르헨티나의 건조한 날씨에 대한 우려가 옥수수 및 대두 선물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.

대두 선물시장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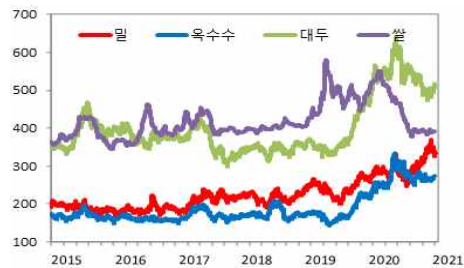


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.2% 상승했다. 대두 선물가격은 남미의 작물 건조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승 마감했다. Commodity Weather Group은 브라질 남부의 작물 스트레스가 대두와 옥수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밝혔다. 말레이시아 팜유 선물가격이 상승 마감하며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.

관련동향

- 인근(1월) 옥수수 및 대두 수출 프리미엄은 걸프만 수출 능력 강화로 소폭 상승. 밀 베이스는 대체로 변하지 않음.
- 21일 국제유가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상승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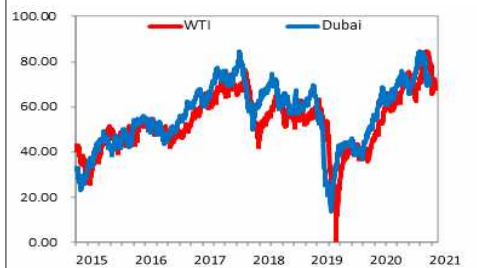
곡물 수출가격 (FOB)



환율



국제유가



구분	곡물수출가격 (FOB)		구분	국제유가			
	기준일	전일대비		기준일	전일대비		
곡물수출가격 (FOB)	밀	335	▲0.3%	환율	원/달러	1,189.8	▲0.5%
	옥수수	273	▲0.4%		달러/유로	1.1277	▲0.3%
	대두	518	▲0.6%	국제유가	WTI	71.12	▲4.2%
	쌀	391	-		Dubai	70.56	▲0.6%

1) 밀(US SRW Gulf), 옥수수(US 3YC Gulf), 대두(US Gulf), 쌀(Thailand 100% Grande B), WTI(근월물), Dubai(현물)

2) 기준일은 '21.12.20(수출가격), '21.12.21(환율), '21.12.21(국제유가)이며 자료출처(국제곡물이사회, 한국은행, 한국석유공사)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.